

발간사

2003 한국여성재단 나눔의 열매 2 '2003 한국여성재단 수시지원사업 보고서'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기관으로서 다양한 이슈의 여성공익 활동을 각 기관 고유활동에 맞게 기획하고 재단과 함께 추진했었던 한국여성재단 정기신청 공모사업 보고서 [2003 한국여성재단 나눔의 열매 1] 발간에 이어, 2003년 정기신청공모사업 외에 재단에서 수시로 자체 기획하거나 발굴했었던 사업들을 엮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2003년 한국여성재단 여성공익활동의 성과물입니다.

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여성재단은 그동안 열악한 사회적 현실과 재정적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땅의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공익기관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자 재단 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, 기업 등의 기부자들과 신뢰를 쌓는 다양한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. 그 결과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비 규모가 2002년 약 3억 5천여만원에서 2003년에는 약 6억여원으로 거의 배가 되었으며, 2004년에도 역시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특히 2003년은 지원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재단만의 독창적인 지원영역으로 확대된 의미있는 해였습니다. 매해 정기적인 시점에서 공모를 통해 다양한 여성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정기신청공모사업 외에, 처음으로 현 여성계의 동향과 발전 전망에 근거하여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기획 또는 발굴하여 수시 지원할 수 있는 배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 이에 2003년 여성재단 수시기획사업 2003 '짧은 여행, 그리고 긴 호흡'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심신 피로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, 여성운동가로서의 비전과 꿈을 재발견하여 그 의지를 '긴 호흡'으로 여성운동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본 재단에서 자체 기획한 사업이었습니다. 비록 '짧은 여행'이었지만 여성단체 실무자들은 일을 놓고 떠난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충분한 '재충전'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,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도 좀더 '긴 호흡'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각 연수팀에 따라 이슈별, 지역별 네트워킹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자매애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이런 매우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2004년에도 역시 진행되고 있는 '짧은 여행, 그리고 긴 호흡' 지원사업은 교보생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속되고 있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

한편, 2003년에는 그동안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원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하게

지원받을 수 없었던 '신규 여성단체의 설립기반 마련'을 위한 초기 사업과 2003년 한 해 동안 여성계의 주요 화두가 되었던 호주제 폐지, 17대 총선 대비 여성정치참여 확대 등 다양한 범여성계 연대활동을 재단에서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였는데, 이는 민간여성재단으로서 여성계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성계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파트너 기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

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민간여성재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원 사각지대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여성공익활동에 애쓰시는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기관 관계자분 한분한분의 큰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, 평등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공익기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